

## 코빗-19 유행병과 교육: 도전과 가능성 브라질, 파소 펀도



우리의 정상적 일상을 뒤흔드는 몇 가지 현실은 사람들의 삶과 기관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노틀담 학교들도 지난 2년간 이 현실에 대해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코빗 19 유행병은 다른 관점에서 가르침과 학습에 도전과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육자들은 새롭고도 다양한 학습 환경에 대해 혁신적이고 사색적이며 긍정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시나리오에 신속히 적응하고 응용해야 했습니다.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갖춘 교육자들은 교육 사도직에 새로운 의미를 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노틀담 학생들 사이에 자율과 직관같은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사이에 어려운 감정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이 도전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바꾸는 중대한 교육적 실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독특한 체험은 교육 네트워크가 제시한 노틀담 가치의 힘을 보여주는데, 이는 인간 삶을 경축하는 동시에, 아름다움과 예술 교육 안에서 이 세상을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이들의 삶을 초월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습득된 지식과 육성된 가치는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입증하는 일, 즉 어떻게 배워야 할지를 가르치는 일의 중요성을 알아낼 능력을 드러냅니다. 학교에서 만들어진 체험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교육 사도직에서 계속 성장하고,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한 체험을 통해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기쁨을 늘리고자 하는 학교는 그 방법을 조정해야 합니다. 내면화된 영성, 독서 클럽, 글짓기, 세계에 대한 고찰, 사회적 숙고, 비판적 사고 등 모든 것은 인간의 고유성과 집단적 협력 작업안에서 정규 교육의 체계화를 증진합니다.

유행병 사태는 학교 환경에 대한 고유한 시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야기하듯 우리는 “우리 행위 안에서 '만남의 문화'를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노틀담 학교들이 지식과,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양육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영성과의 만남의 장이 되기를 빕니다.